

도서관 명칭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 분석

-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

Social Discourse Analysis on Title and Role of Library: Focusing on Controversy over 'The Forest of Wisdom', Paju Bookcity

조 수 연 (Su-Yeon Cho)*

박 성 진 (Sung-Jin Park)**

초 록

본 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해 '지혜의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인터뷰, 관계자의 일기책 등에 나타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사회적 '담론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한 언론보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소셜 미디어, 도서관계와 출판계 인사들의 담론에 대한 인터뷰를 텍스트 분석, 담론적 실천, 사회적 담론 등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혜의숲이 오히려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담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재접합 되는 결과를 낳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다시 이끌어냈고, 도서관과 출판이 다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율적 담론을 위한 길을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used social discourse analysis and analyzed social discourse on library reflected in media, social media, interview and diary of persons concerned, particularly focusing o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Forest of Wisdom' should be called a 'library'. The study analyzed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including media report that eventually developed a social 'discourse event', social media surrounding this issue, and interview with persons in the library community and publishing industry regarding discourse. This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Forest of Wisdom' rather led social discourse over the role of library especially when traditional library is faced with new demands for discourse and changes.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issu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library and the publishing industry to think over and develop ways for autonomous discourse that seeks their true value.

키워드: 지혜의숲, 도서관의 명칭, 도서관의 역할, 전통적 도서관, 사회적 담론, 도서관, 출판

The Forest of Wisdom, Title of Library, Role of Library, Traditional Library, Social Discourse, Library, Publication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홍보사서(pdwriter2@naver.com)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ylsmpsj@naver.com)

논문접수일자 : 2015년 2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3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3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71-198,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1.171]

1. 서론

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도서관을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독자에게 도서·조사·연구·참고·취미 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법」¹⁾ 제2조 1항에서는 도서관서비스를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지원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교육, 국민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이용되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C. 3세기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수행했던 업무도 오늘날의 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지적 제공처였고, 학술적 담론의 장(venue)이었다. 이를 위해 세계 전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제공하였다. 또한 소장한 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도서관의 기능은 수집·분류·목록작성 외에 원전교정·주해작성·사본복제·출판 등 매우 다양하였다(남태우 2002). 또한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학자 사서’들이 오늘날 ‘주제전문사서’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학자사서와 사서의 전문성은 이때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의 이러한 존재 의미와 역할이 오늘날에 와서 흔들리고 있다. 인도 도서관운동의 아버지 랑가나단(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Five Laws of Library Science)²⁾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의 유기체적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책이 있는 모든 곳을 도서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지식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명칭에 대한 혼란은 도서관 존립의 정체성을 흔들 뿐 아니라, 해체와 소멸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4년 6월 19일 경기 파주출판도시에 문을 연 ‘지혜의숲’은 기존의 도서관의 개념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혜의숲은 이용자가 보고 찾을 수 있는 책의 문패격인 목록³⁾이 없다. 또한 책, 시설과 함께 도서관의 3대 요소로 불리는 ‘사서’도 없다.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정보이용서비스를 비롯하여 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서 대신 자원봉사자인 ‘권독사(勸讀士, 책과 독서를 권하는 사람)’

1)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2) 제1법칙: Books are for use (모든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2법칙: Every person his or her book(모든 독자에게 그의 책을), 제3법칙: Every book its reader(모든 책에 그의 독자를), 제4법칙: Save the time of readers(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제5법칙: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3) 국립국어원 표준대백과사전. ‘어떤 물품의 이름이나 책 제목 따위를 일정한 순서로 적은 것’.

를 두고 있다. 890㎡(270여 평)에 이르는 공간에 3.1km 길이, 8m 높이의 거대한 서가를 만들고 오로지 학자 30여 명과 국책기관 등 150여 기관 및 출판사 36곳의 기증도서 등 총 20만권의 책을 꽂아 놓았다. 요람(선택)에서 무덤(보존, 폐기)까지로 간주되는 기본적인 장서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없다. 오직 기증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조성장소가 주거지도 아닐뿐더러 접근성까지 떨어져 정보전달 매체의 소장 공간과 문화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위치에 있지도 않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디지털 자료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관 명칭 논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혜의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인간의 행위인 ‘담론’을 통해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명칭과 역할 논란에 대한 쟁점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도서관’ 명칭과 역할 논란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는 책이 있는 모든 곳을 도서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책이 없는 곳도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책이 있는 모든 곳을 도서관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작은도서관을 들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엄대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마을문고운동이 1980년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주도의 관제 활동으로 변질되고, 농촌공동체의 붕괴에 따라 급속히 쇠락하면서 함께 쇠퇴하게 된 문고운동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문고와의 차별성을 모색했던 대안운동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김유승 2014). 이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지역공동체로부터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는 기관”(도서관계 2006), “민간의 사립문고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적 명사”(정현태 외 2010), “작은도서관은 문고와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소희 2007) 등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규모의 측면이 아닌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09년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 논의는 일단락 된 듯 보였으나, 여전히 도서관계 일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도서관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이종문(2003)에 따르면 심지어 책이 없는 곳도 도서관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장난감도서관을 들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극히 일부분만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의 요건을 충족한 후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정의하는 도서관과 그 정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법에도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에 장난감을 범주화시키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사례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906년(光武10년) 대한제국 이래 1995년까지 90여 년 동안 도서관이라는 문화기관을 '도서관'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술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문화센터, 학술정보관,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공도서관은 1994년 하반기부터 사회·교육적 기능을 추가하거나, 도서관의 시설 또는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과정, 별도의 평생학습관 등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도서관의 기능과 조직을 흡수·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칭 변경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대체 명칭으로 윤희운(1999)은 사회교육관, 학생종합학습관, 교육정보관, 교육정보센터, 문화예술 사업소 등이 거론되다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문화회관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밝힌다. 이는 지식문화기반 확충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공공도서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윤희운 1999, 재인용) "경제위기와 교육청의 기능변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래가 달린 구조조정의 본래의 목적까지도 왜곡시키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사서직 관장제의 고수와 탈취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기능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제기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생학습이 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능인양 호도하여 명칭 변경을 시도한다면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정보자료의 제공, 문화활동의 지원, 독서공간으로서의 기능은 고사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문화의 사회적 기반은 황폐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 논란은 그 사실을 입증해준다. 광동철(2013)에 따르면 2003년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 50개교 중 7개교(14%),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 90개교 중 19개교(21%)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학술정보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처, (산업기술)정보관, 문헌정보관 등의 이름을 채택하여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 2007년까지는 국공립대학교 50개교 중 17개교(34%), 사립대학교 107개교 중 29개교(27%)가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2년 국공립대학교 49개교 모두 '도서관' 명칭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사립대학교도 2012년 172개교 중 30개교(18%)로 비중이 낮아졌다. 한국전문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경우도 140개교가 모두 '도서관' 명칭을 회복하였다. 김영심(2000)은 이 같은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 시기는 대부분 도서관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1998년 5월 전문대학의 학교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또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상 도서관이 전산분야와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명칭 변경이 단순히 이름만

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대학도서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전산실, 전산소, 전자계산소 등과 같은 전산기구와의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였다. 이렇듯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 사례는 도서관이 학술이나 전산 등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재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2.2 비판적 담론분석

이처럼 목록도, 사서도 없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보이용서비스가 불가능한 '지혜의숲'을 도서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을 통한 보도, 소셜 미디어 상에 사용된 언어 등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은 담론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 임태섭(1993)은 흔히 담론분석의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여러 형태의 담론을 그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여러 층으로 겹쳐 있는 복합적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 미셸 푸코(2011)는 담론(discourse)은 본래 논증적 언어,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학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확장된 의미로 '일상적인 담화, 문학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언설들, 나아가 때때로 과학적 명제들까지 포괄하는 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진우 외(1996)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관계, 그리고 동시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담론'은 이 때문에 후기 자본주의의 사회적 현상과 문화를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통적 담론개념이 진리를 구성하는 언어 규칙을 서술한다면, 현재의 담론은 개별적 경험사실을 비교, 반추하여 보편적 진리에 이르는 합리적 과정과 절차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담론은 인간의 모든 언어행위를 통해 형성된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특히 반다이크(van Dijk)와 페어클로우(Fairclough)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페어클로우는 미디어 담론과 그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적 과정과 사회적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존의 언어학적 담론분석과 푸코의 담론이론을 결합해 양자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등 세 차원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신동일(2012)은 텍스트적 실천은 어휘, 구문, 결합적 도구를 통해 텍스트 상에서 직간접적으로 하나의 담론을 서서히 부각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담론의 행위자가 특정 현상을 지시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가 선택되고,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모양의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어휘가 빈번하게 곳곳에 배치되기도 한다. 담론적 실천은 앞서 노출된 텍스트



<그림 1>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

출처: 정미정, 백선기, 2011. 한국 신문의 영화에 관한 보도담론의 특징과 의미: 산업담론과 문화담론의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3): 39.

<표 1> 페어클로우 담론 분석의 3단계 작업

| 분석차원 | 단계 | 내용 |
|--------|----|--|
| 텍스트 | 기술 | 해당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는 언어학적 속성들을 기술하는 단계 |
| 담론적 실천 | 해석 |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행과정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단계 |
| 사회적 실천 | 설명 | 텍스트의 산출 및 해석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결정 내용 및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 |

출처: 최윤선, 2014. 『비판적 담론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6.

를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체제를 구성시키는 단계이다. 보도기사, 기획기사, 전문가 칼럼, 독자 투고, 사설, 인터뷰 등의 다른 장르의 텍스트가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면 담론적 사건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적 실천은 앞선 단계와는 달리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담론으로 형성된 진술 체제가 구체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형성된 새로운 담론을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 정당화, 혹은 영속화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미시적인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담론적

형성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의도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비교적 논리적인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 '지혜의숲' 운영 사례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지혜의숲은 2013년 2월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새로 지어 개관하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들어갈 100만권 장서의 도서관을 20억원으로 만들겠다.”는 김언호 이사장(한길사 대표)⁴⁾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지혜의숲은 영국 웨일

4) 김언호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신문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1976년 한길사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대표로 있다. 1998년 한국출판인회를 창설하고, 제1대·제2대 회장을 맡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파주출판도시 건설에 참여했고, 1990년 중반부터는 예술인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책축제 파주북소리 조직위원장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 지방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나 벨기에의 산골 책방마을 레뒤, 네덜란드의 책방마을 브레드포트 등 유럽의 책마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파주 헤이리에 있는 한길사 북카페 '포레스타(Foresta, 숲이라는 이탈리아 말)'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포레스타'는 20m 길이, 6m 높이의 대형서가에 한길사가 1977년부터 지금까지 만든 책 1만 2,000권이 꽂혀 있다. 결국 포레스타가 지혜의숲으로 진화한 셈이다. 열린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는 파주출판단지 '지혜의숲' 도서관은 종이책 보호·보존·활용 등 지식 리사이클링 운동을 통한 도서 재활용을 위해 기획 당시부터 학자, 출판사,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책을 보호·보존하고 독서하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산은 2014년 3월 받은 국고 7억원, 파주출판문화재단 자체 예산 3억 5,000만원 등 총예산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국비 5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 초기에는 서버,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검색 프로그램, 검색용 컴퓨터 등 하드웨어 구축 및 마크 구축, 도서, 배가, 도난방지 시스템 등 도서 입력 및 전산화 사업에 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6월 개관 당시 지혜의숲은 책 20만권에 대한 목록작업 없이 운영을 시작하였다. 추후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학자들의 기증도서 5만권에 대한 목록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만권에 대한 목록작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한겨레 2014.7.30). 그러나 지혜의숲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나 도난방지 시스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

었다.

지혜의숲 조성 총 규모는 3,888.4㎡(1,176.2평)에 달한다. 현재는 전체 계획규모의 1/4 수준인 890㎡(270여 평)에 이르는 로비와 복도에 서가가 구성되어 있다. 장서규모는 현재 20만권으로 시작했지만 중장기적으로 100만권 소장이 목표다. 당초 계획했던 공간 규모가 현재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공간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서 구성은 연구자·학자·저술가들의 소장 도서와 출판사 도서 등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집방법인 구입이 아니라 기증방식만을 취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래 '장서'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는 도서관이 수집·보존하는 도서의 집합이다. 여기에 지식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더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보존하는 모든 지식정보 매체의 집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는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지적 고민, 사회변혁의 단초와 궤적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러나 장서의 현실적 즉, 직접적 의미는 당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인 동시에 후대를 위한 접근과 이용을 보증하는 실물자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도서관과 사서는 오로지 이용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도서관에 오는 이유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때문에 장서가 충실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도서관이 된다. 인식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특히 공공도서관은 윤희윤(2009)에 따르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식정보의 요람, 문화활동의 거점, 평생학습의 산실로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문화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별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는

요체가 바로 장서요, 장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실하게 구축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를 수집·제공·보존하는 조직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듯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공공도서관에 부여해왔다. 도서관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원칙과 이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오늘날 장서개발의 고전적 정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대표하는 정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의 공개와 무료 이용 보장, 둘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요구론 중심의 선택론'에 따른 자료 선택, 셋째, 자금자족형 장서개발 중시, 넷째,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or Management Policy) 수립, 다섯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정보수요 등을 조사하고 대출경향을 분석하여 장서개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종이책 발행부수는 총 1만권 정도이며, 이 중에서 2012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5,027부), 학습지(1,676부)를 제외하면 연간 발행부수는 3,708권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책을 두 권씩 기증받는다 해도 앞으로 80만권을 더해 100만권을 채우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지혜의숲은 책, 시설과 함께 도서관의 3대 요소로 불리는 '사서'도 없다.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보이용서비스 등을 제공할 사서 대신 자원봉사자인 '권독사' 40명이 하루 최소

5명, 4시간씩 자원봉사 형태로 지키고 있을 뿐이다. '권독사' 명칭도 회의 과정에서 김언호 이사장의 제안으로 지은 것이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인문서를 주로 내는 김언호 이사장의 배경을 감안할 때 1925년 1월 동경에서 조직되어 1926년 11월 해체된 조선 국내의 분열된 사회주의운동에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의 통일을 주장했던 일월회(一月會)가 '사상운동(思想運動)'과 함께 발행한 마지막 '사'의 한자 뜻은 다르지만 음이 같은 '권독사(勸讀社)'⁵⁾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일월회의 '권독사'는 막스나 레닌, 또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의 저작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한편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33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다. 또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1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개관 시 최소 사서 3명을 두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혜의숲 역시 건물 면적 기준으로 보면 최소 5명의 사서를 뒤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요람(선택)에서 무덤(보존, 폐기)까지로 간주되는 기본적인 장서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증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장덕현, 강은영(2011)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장서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출판물에 대한 공식적이고 일차적인 소비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5) 박종인. 2007.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一月會. 『한국근현대사연구』, 40: 45-67.

즉, 출판물의 일차적인 소비자인 도서관이 기본수요를 창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출판사는 양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출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희윤(2009)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서관은 출판계의 공적시장이자 제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출판계는 도서관의 필수적인 서비스 도구인 지식정보자료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도서관이 출판물의 일차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도서관과 자료 구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출판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를 충실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사회 자본이자 출판물의 중추적 기관 수요자로서 공공재 상품인 책을 신속히 구입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지혜의숲은 조성장소가 주거지도 아닐 뿐더러 접근성까지 떨어져 정보전달매체의 소장 공간과 문화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디지털 자료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소유하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이용자가 지식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곳으로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지식정보 서비스는 도서관 내·외적인 환경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 지향의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우권(2002)은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부가가치 있는 지식정보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그 요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공동) 수서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내부 및 외부자원 모두 통합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열람목록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수용할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명시적 지식 또는 암묵적 지식이거나, 현재 사이트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던지 간에, 선택된 결합한 지식에 대한 모든 정보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혜의숲은 전통적인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도서관으로 명명되어졌다는 사실부터 논란의 여지를 안고 출발한 셈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해 ‘지혜의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인터뷰, 관계자의 저서 등에 나타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였다. 텍스트에서 어떤 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텍스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표

현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담론화 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산출 및 해석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결정 내용 및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지혜의숲’은 어떠한 텍스트로
표현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지혜의숲’을 통해 형성된 사회
적 담론은 어떻게 생산 소비되
는가?
- 〈연구문제 3〉 ‘지혜의숲’은 사회적 효과를 어
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3.2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업체
인 스크랩마스터(www.scrapmaster.co.kr)의 지
면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기사가 가장 집중
됐던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5개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혜의숲’을 검색
해 총 49건의 기사를 얻었다. 방송뉴스는 포털사
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검색,
4건을 찾았다. 또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
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서
트위터 글을 대상으로 ‘지혜의숲’을 검색했더니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130건의 관련 글이 나왔
다. 담론의 흐름과 그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분석 시기는 지혜의숲 첫 구상 당시
부터 지혜의숲 구체화 과정 및 개관 이후 가장
쟁점화되었던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여 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15년 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시작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모델로 성
장한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박영숙 이사장과 10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30여 분 간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박영숙 이사장은 2014년 9월 25일 파
주출판문화단지 인근 교하도서관에서 김언호 출
판도시문화재단 위원장과 ‘도서관 초대석, 지혜
의숲과 도서관’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출
판과 도서관계 전문가가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
한 생각을 중심으로 독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쉽게도 교하
도서관은 이날 행사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을 진행하지 않아 박영숙 이사장과의 대화
외에는 다른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주북소리 2014’ 기간
인 10월 9일 ‘지혜의 숲’을 찾아 실질적인 조성
실무를 담당한 아시아출판문화센터 어린이책연
구회 정병규 책임연구원을 만나 1시간 30분 동
안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이
사장 선출과 함께 지혜의숲 조성을 처음 발표한
김언호 이사장과의 이날 직접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지혜의숲 대표 권독사인 번역가 박종일
(65)씨와 1섹터 ‘개인 기증자 코너’에서 당일 근
무하고 있던 권독사 손명수(61)씨를 만나 얘기
를 들었다.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총 2시
간가량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김언호
이사장이 2013년 1년간의 일기를 엮은 ‘책들의
숲이여 음향이어’(김언호 2014)에 등장한 지혜
의숲 관련 문구를 모두 조사했다.

수집된 자료의 연구방법은 페어클로우의 비
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하였다. ‘지혜의숲’ 신문
기사 및 트위터 글, 인터뷰 등을 모두 읽어가면

서 '지혜의숲' 담론이 어떠한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지 주목하였다. 우선 보도기사와 칼럼을 중심으로 주로 어휘 사용의 측면을 주목하면서 텍스트적 실천의 의도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런 다음에 트위터 글과 인터뷰 기사 등 다른 장르의 담론이 어떻게 초기 보도기사의 텍스트와 결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3.3 신뢰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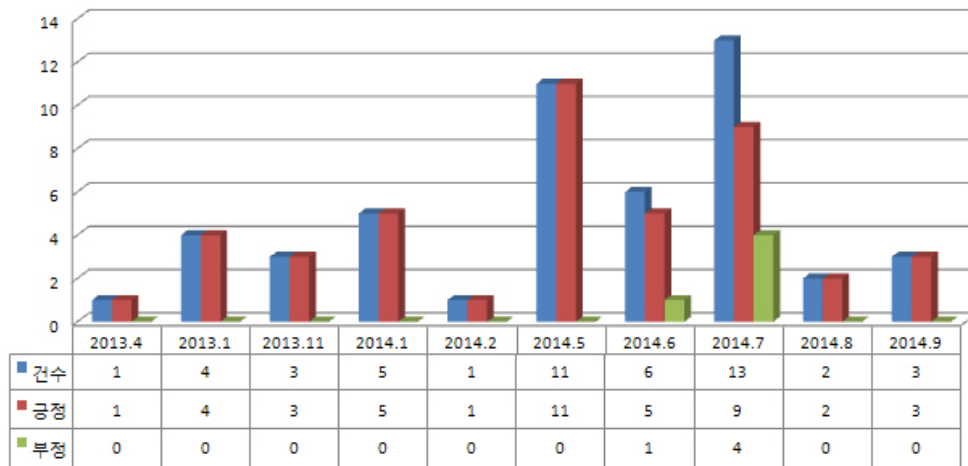
본 연구는 린컨(Y. Lincoln)과 구바(E. Guba)의 신뢰성 준거 방법(김영천 2012)에 따라 삼각검증법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연구자는 지혜의 숲 조성 초기부터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집중적인 기사 분석 및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인터뷰, 같은 주제로 관계자와 인근 도서관에서 공개 대담을 진행한 도서관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특정한 기간에 수집된 자료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일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경영' 담당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자 등 2명의 전문가에게 2014년 12월 3일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12월 3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면담, 문자, 이메일 의견서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전문가를 통한 신뢰성 검토과정을 통해 담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분석을 추가하였다. 시기별 기사에 대한 분량의 변화, 긍정·부정 글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분

석의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트위터 글 분석은 현재 유일하게 트위터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이 한 달을 초과하는 글에 대한 조건검색이 불가능해 시간관계상 적용하지 못하였다. 추가로 또 다른 연구자가 제시한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7억원의 문제에 대해 도서관이 아니라고 할 때 공공성은 사라지는 것인지 여전히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대중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을 서비스의 양질화, 혹은 도서관의 운영주체 즉, 사서나 운영장비, 도서검색시스템 도서관의 고유 기능 구입이나 목록작업 등이 모두 전제될 때 그것을 도서관으로 부르고 그 때야 비로소 공공성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한 검증은 못했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4. 분석결과

4.1 내용분석

담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조사된 '지혜의 숲'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시기별 기사에 대한 분량의 변화, 긍정·부정 글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분석의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기사량은 2013년 4월 첫 등장 이후 2013년 10월(4건), 2013년 11월(3건), 2014년 1월(5건), 5월(11건)으로 꾸준히 늘어 2014년 5월 28일 언론 공개 행



〈표 2〉 시기별 기사 분석

사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2일 경향신문의 “손닿지 않는 곳에 책 꽂아놓고 완전 개가식”(2014년 6월 2일) 첫 반박 기사가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7월 부정 보도가 4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4.2 텍스트적 실천: 어휘 속 숨겨진 진실

페어클로우(1989)⁶⁾가 제시하는 텍스트 분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분석과 의미론, 문장 및 좀 더 작은 단위들의 문법, 소리 체계(음운론) 그리고 글자 체계 등을 망라”한다. 텍스트 분석은 또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응집), 인터뷰에서의 말 순서 취하기 조직이나 신문 기사의 전체 구조 같은 것들을 비롯하여 문장 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대한 분석 역시 포괄”한다. 그는 담론의 분석은 우선 그 단위인 텍스트의 언어와

‘짜임새(texture)’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은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그리고 거시구조적·도식적 차원을 포함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분석을 포함할 뿐 아니라 텍스트 실천-담론실천-사회적 실천은 위계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은 앞으로 논의될 사회적 상호작용 및 맥락과도 위계적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자료수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표제어에 드러난 합성어이다. 텍스트 실천의 분석은 지혜의숲을 ‘도서관’을 묘사하는 어휘에 집중한다. 또한 조성과정, 그리고 개관 후 언론기사 및 소셜 미디어 등 텍스트들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 ‘지혜의숲’은 ‘도서관’이다

지혜의숲은 앞서 밝혔다시피 지난해 2월 출

6) 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Longman, 1989. 김지홍 옮김, 『언어와 권력』, 경진, 2011. 29-49. 재인용.

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언호 이사장을 통해 처음 발현되었다. 이후 김언호 이사장은 조성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을 만나 지혜의숲 조성 필요성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지혜의숲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의 언론기사를 분석하면 지혜의숲 개관 전 기사들은 김언호 이사장이 주장대로 긍정적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결과 2013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5개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혜의숲'으로 검색해 얻은 총 43건의 신문기사와 4건의 방송뉴스 가운데 40건의 기사가 지혜의숲은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혜의숲 보도는 서울신문에 게재된 김언호 이사장의 "24시간 열린 종이책 도서관을 만들면서"(2013. 10. 4.) 칼럼을 시작으로 경향신문 "100만권 갖춘 도서관 열겠다"(2013. 10. 28.), 서울신문 "100만권 기증장서 갖춘 열린 도서관 '지혜의 숲' 조성 김언호·김병윤 씨"(2013. 10. 29.), 동아일보 "학자-출판사 재고도서 기증받아 내년 5월 파주서 열린도서관 개관"(2013. 10. 30.), 문화일보 "열린 도서관"(2013. 11. 4.), 한겨레 "종이책 사멸 맞설 '지혜의 숲' 도서관 지어요"(2013. 11. 28.) 등 초기 기사들은 국회의 예산 배정을 측면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예산 배정 이후 2014년 1월 27일 진행된 지혜의숲 개관 설명회를 통해 경향신문 "24시간 도서관 지혜의 숲 4월 개관"(2014. 1. 28.)을 비롯해 국민일보 "24시간 도서관, 파주에 4월 중순 개관"(2014. 1. 28.), 조선일보 "인문학 도서관 지혜의 숲 4월 개관"(2014. 1. 29.), 동아일보 "남거나 버릴 책 있으면 이곳에 기증하

세요"(2014. 1. 29.), 세계일보 "24시간 열려있는 '지혜의숲'으로"(2014. 2. 3.) 등 주요 신문들은 "지혜의숲 도서관이 정부로부터 서가 마련과 운영을 위한 예산 7억원을 배정받아 구체화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의 출현을 반겼다.

이들 보도에 긍정에 대한 어휘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서관' 명칭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들을 살펴보면 '가치', '개방', '공간', '공유', '리사이클링', '신개념', '실험', '열린', '자원봉사', '절감', '지식', '활성화'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단어들의 특징은 수식어로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열린 도서관', '신개념 도서관', '리사이클링 공간', '지식 공유', '지식의 리사이클링', '열린 지식', '의미 있는 실험' 등 따로 쓰여지고 했지만, 조합해서 의미를 극대화하는 수식어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태(態), 명사화, 긍정·부정문, 서법(서술문, 문법상의 의문문, 명령문), 대명사, 접속사 등 문법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2.2 '지혜의숲'은 '도서관'이 아니다

지혜의숲에 대한 부정적인 반론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6월 19일 개관을 앞두고 진행된 2014년 5월 28일 언론 공개 행사 이후 경향신문의 "손닿지 않는 곳에 책 꽂아놓고 완전 개가식"(2014. 6. 2.) 보도가 처음이다. 가시화되기 전의 기사가 긍정 일색이었던 데 비해 막상 개관을 앞두고 실체를 대하자 부정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선 긍정적인 담론과 마찬가지로 수식어는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나 '뒤섞여', '전략', '책의 납골당', '지적', '불가능', '계

약직', '비정규직', '해고', '고질'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등장한다. 개관 전과 달리 경향신문은 내부 논설위원의 칼럼 "신개념 도서관"(2014. 6. 28.)과 외부 전문가 칼럼 "'지혜의 숲'이라는 '종이무덤'"(2014. 7. 1.) 등 개관 후 보도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유지한다. 이들 기사에서 논란이 되는 어휘는 '무덤', '소품', '위축', '정반대', '고민', '장식', '알량한', '황폐한', '맨얼굴', '뻔뻔함', '경쟁', '양극화', '위기', '허허벌판', '전시', '기괴', '불편한', '거부', '줄부스러운', '된장X', '돈지X' 등 수위가 높은 완곡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책의 무덤', '어려운 배열', '황폐한 맨얼굴', '거대한 인테리어 소품', '전시효과', '최악의 위기', '책납골당' 등 조합어도 부정적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들 어휘들은 상징은 지혜의숲이 '도서관'이 아니라는 강한 은유를 내포하고 있다.

4.3 담론적 실천

텍스트 차원이 텍스트의 언어학적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가 생성되고 사회적으로 배포되는 방식 및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 등과 같은 텍스트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이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해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박명진(2012)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타입의 담론들(예를 들어 상업적인 것인가, 민주화 지향적인가, 군사문화적인 것인가 등)이 텍스트 생산에 차용되어 결합된 것인지, 텍스트 생산의 주체는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해석은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문화적 해석 틀이 상호 텍스트적

으로 작용했는지 같은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의숲 개관 다음 날인 6월 20일, SBS는 저녁 메인뉴스에 "지혜의숲"을 걷다... 책 권하는 진짜 도서관"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도서관계를 비롯한 동료 출판가, 작가그룹 등의 강력한 반발을 낳는 계기가 된다.

〈김성준 앵커〉 도서관 기본 게 언제던가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책을 '권하는' 실험적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현 기자〉 8미터 높이 서가의 책 20만권이 누군가가 꺼내 읽기를 기다립니다. (중략) 책들은 기증자 별로 정리돼, 기증한 학자의 연구 발자취와 각 출판사가 걸어온 방향을 보여 줍니다. 사서 대신 책 권하는 사람, '권독사'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자들을 돕습니다. 높은 곳의 책도 이들에게 요청하면 꺼내 줍니다. 책을 대출해주진 않지만, 1년 365일 문을 열고, 3분의 1 정도 공간은 24시간 개방됩니다.

〈김인호/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이 나가자 서울의 한 도서관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럼 가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경향신문 칼럼 '한기호의 다독다독(多讀多讀)'

(2014. 7. 1.)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도서관의 3대 구성 요소는 시설, 자료(책), 인력이다. 이미 존재하는 시설(건물)에 거대한 책장을 설치하고 책만 진열해놓으면 도서관인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혜의 숲'은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8m 높이에 책을 진열해놓아 일부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찾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인문학자 김경집 작가도 한국일보 '토요에세이' "숲과 늪"(2014. 7. 12.) 칼럼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은 자신이 사회문제화하려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장르 즉 형식으로 담아 다양한 독자층에게 혹은 동일한 독자의 다양한 측면에 의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칼럼'은 '보도'라는 장르가 담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기 위하여 활용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지혜의 숲'이 생겼다. 수십만 권의 책을 가득 담은 '신개념의 도서관'이라며 예찬이 이어진다. 그러나 정작 가본 그곳은 끔찍했다. 그것은 숲이 아니라 늪이었다. 다양한 생태의 보고인 늪이 아니라 무질서와 공포의 늪이다. 분류도 안 되고 사서도 없는 그곳을 어떻게 도서관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 그 파렴치와 무지가 놀랍다. (중략) 높은 책장에 꽂힌 책들은 제목을 읽어내기도 어려운데 사서도 아니고 일종의 자원봉사자 같은 권독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업종을 두었지만 도대체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아야 찾아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러자 개관 전부터 "종이책 사멸 맞설 '지혜의 숲' 도서관 지어요"(2013. 11. 28.), "책의 숲에서 책의 유토피아를 꿈꾼다"(2014. 5. 30.) 등 '사람'과 '문화'면 4·5단 톱기사로 개관에 힘을 보냈던 한겨레 한승동 기사는 "빈지수 틀린 '지혜의 숲' 논란"(2014. 7. 16.) 칼럼을 통해 반박에 나선다. 기사는 '보도' 장르에서는 최대한 혹은 외관상 기사가 자신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칼럼'과 같은 장르에서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미디어 간의 체계모니 다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기능과 효용성이다. 버려질지도 모를 책들과 기존 건물을 재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 가까이하게 하는 관장은 문화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도서관이든 북카페든 퓨전형 독서공간이든 상관없지 않을까? 도서관 하나를 제대로 짓고 정식 사서를 두고 운용하려면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물론 그런 도서관은 늘려야 옳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도서관을 더 늘리고 책을 더 많이 구입하고 정식 사서를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지혜의 숲과 같은 시도가 양립 불가능한 모순관계일까?

한승동 기사는 이어 "권독사와 이용자들 어울리는 정보·담소공간 되길"(2014. 7. 30.) 4단 톱 기사를 통해 지혜의숲 권독사 대표 박종일 씨의 인터뷰를 후속 보도한다. '보도'가 담을 수 없

는 부분을 '칼럼'을 통해 주관적 의견을 표출한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터뷰'라는 장르를 통해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다.

주 5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해온 박씨는 지혜의 숲 개관 한달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우선 내방객들이 초기 단순 나들이객에서 책을 보려는 중장년층으로 바뀌며 열람석의 3분의 2를 늘 채우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중략) 박씨는 “지혜의 숲 개관에 7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비용으로 이만큼 균질적이고 좋은 책들을 모아 공유하기는 쉬운 일인가. 도서관 하나 짓는 데만 적어도 수백억원, 연간 유지비만 최소한 수십억원이 들 텐데, 물론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이런 형태의 시도도 값진 것 아닌가.”

언론조차 이런 공방이 이어질 정도니 소셜 미디어 상의 논란은 훨씬 더 치열하게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서 트위터 글을 대상으로 '지혜의숲'을 검색했더니 무려 3,130건의 관련 글이 나왔다. 트위터에서도 언론 보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개관 전에는 기대의 글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개관 후 양상이 달라졌다. 소셜 미디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도서관이 지혜의 숲이라는 건, 참 좋다...과주출판도시에 지혜의 숲이 생긴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 이 프로젝트에 도서관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참여하고 있을까?(사서 이용훈 @blackmt1, 2013. 10. 29.)

100만권의 장서, 서가 및 독서 공간, 강의와 토론, 출판도시 과주에 내년 5월 새로운 개념의 대형 도서관 '지혜의 숲'이 등장한다. 아, 과주로 살 곳을 옮기고 싶을만큼 가슴 뛰게 만드는...(정중규 @bulkoturi, 2013. 11. 30.)

열린도서관 '지혜의 숲' 개장에 대한 소감: 나의 책?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잘 찾아봐. 이 세상 절판본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세상은 대도적 시대를 맞는다.(P.A. Marvin @cyaninsane, 2014. 6. 4. 리트윗 50.)

김재환(2011)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공간 안에서는 기존의 미디어가 제시한 의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의제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곧,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가 주도하는 의제를 전파·유통하는 역할이 더 크지 미디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제를 생산하는 기능은 현저히 약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개인 미디어로서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된 결과다. 지혜의숲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상에 나타난 특징도 기존의 미디어가 제시한 의제를 중심으로 전파·유통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소셜 미디어 상에 지혜의숲에 대한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에 나타난 찬성비율은 대략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책속에서 아무 방해 없이 힐링 할 수 있는 곳, 지혜의 숲. 너무 좋다. 국고낭비라고 말이 많지만 외국에 멋진 도서관들을 보며 하염없이 부러워했던 나로서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 낭비가 아니라 좋은 투자가치겠지?!(김주영 @jyk_ju00, 2014. 7. 23.)

파주 열린도서관 지혜의 숲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보전, 개방, 자율이다. 이곳에 쌓아두지 않으면 파쇄될 책의 수명을 있고 24시간 누구에게나 공간을 열어 두며, 참가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간을 활용한다.(아르쭈@archum20, 2014. 6. 3. 리트윗 4.)

종이책의 수명을 늘리고, 독서를 권장하는 랜드마크를 꿈꿨던 '책의 유토피아' 지혜의숲은 이런 논란이 거듭되자 '도서관'이 아니라 '공유서재'라고 명칭을 바꾼다. 지혜의숲 조성 실무를 맡아 진행한 아시아출판문화센터 어린이책 예술센터 정병규 책임연구원은 언론의 '진짜 도서관' 논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들은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는 기증서가이고 도서관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면 그때 당시는 안 되어 있었으니까 바코드 입력하면 정보가 다 뜨고, 어떤 서가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도서관은 절대 아닙니다. 쇼킹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언론사 쪽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것들이 나왔던 거죠. 진짜 도서관이니 뭐니 하면

서... 기사들 스크랩 하면서 직원들 보여주면 어디서 이런 얘길 듣고 이렇게 썼을까? 외부적으로는 아무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식채널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절대 개인적으로는, 말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그런데 받아쓰기를 또 하더라고요.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에 대해 서덕희(2003)는 장르적 다양성을 통하여 모호한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담론적 실천을 '확인사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문제화된 사건이 원인 즉 용의자를 한 장르 내의 다양한 변의를 통하여 한 행위자로 몰아가는 담론적 실천은 '토끼몰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확인사살'의 과정이 장르상 주관성과 객관성의 양 극단에 위치해 있는 '기자수첩'이나 '여론조사 보도'와 같은 장르에 의존하고 있다면, 용의자를 몰아가는 방식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듯 보이는 '사설'이나 '미니칼럼', '독자들의 목소리', '시론' 혹은 '논고' 등의 여론 장르에 기대고 있다. 지혜의숲 보도 역시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일반 스트레이트성 보도가 아닌 오피니언 지면을 통해 소개됐다는 면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관심 있는 목소리를 언론이 '보도'가 아닌 다른 장르를 활용해 반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사회적 실천

박명진(2012)은 사회적 실천은 담론이 생산되는 거시 사회의 조직적, 제도적 환경을 의미하며, 그것이 어떻게 담론 수행 차원과 연결되

어 텍스트와 구성적, 구축적 효과를 구현하는 지 탐구한다고 말한다. 이 차원은 텍스트나 담론 수행 차원보다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담론이 생산되는 세계가 속한 사회구조나 제도가 담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지 읽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담론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또 역으로 그렇게 결정된 담화가 사회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떤 생산·재생산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주된 관심을 둔다. 즉 담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그렇게 구성된 담론이 다시 사회를 구성해내는 과정을 설명해내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이다.

지혜의숲은 앞서 밝혔듯이 2013년 2월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언호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김언호 이사장이 2013년 1년간의 일기를 엮은 책 '책들의 숲이여 음향이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회가 열렸던 날(2월 28일)이었다. 이날 김언호 이사장은 "지지향(파주출판도시 게스트하우스)을 '라이브러리 호텔'로 만들어야 한다. 복도를 '출판도시미술관'으로 꾸미는 것도 연구하자. 독자들이 감동하게 해야 한다."고 썼다. "출판도시 전체를 에코도서관, 에코출판박물관으로 진화시켜야 한다."(3월 2일), "지지향 호텔 로비는 특히 라이브러리호텔로 바꾸어야 한다. 2·3·4·5층의 복도에 출판사 주제별·작가별·저술가 별로 책들을 비치한다. 책을 기증하는 출판사나 기증자별로 책 꽃을 수 있을 것이다."(3월 4일), "박광성 사장⁷⁾은 '취임

식' 같은 걸 하면서 나의 구상 밝히는 '연설'을 하자 했다. '라이브러리 호텔 지지향'과 '100인 1,000강좌'는 한국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기획이라면서 정말 해보고 싶다 했다."(3월 29일), "출판도시문화재단은 파주출판도시의 다목적 문화공간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지적·정신적 연찬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열린 라이브러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 연구자·학자·저술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한데 모아 보존·보호하고 관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⁸⁾(4월 9일), "이번 주말에 '지지향+아시아센터'를 하나의 열린 도서관으로 꾸미는 '기획안'을 새로 만들어야겠다."(4월 12일), "24시간 열려 있는 도서관' 이야기했다."(8월 17일), "열린 도서관 디자이너가 너무 많으면 통제하기 힘들다. 두서너 명의 디자이너를 위촉하고 내가 직접 디렉팅하겠다. '책'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과도한 디자이너가 돼서는 안 된다. 책이 가장 경이로운 디자인이다. 책들의 숲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다!"(8월 19일), "국회로 가서 도종환 의원 방문했다. 문화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긴 예산편성의 내용을 문화부로부터 받아 보여주었다. 10억원이다. '지혜의 숲'에 2억이 배정되어 있다. 20억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할 때 좀 도와달라고 했다. 도 의원에게 국회가 출판진흥을 위한 '결의안' 같은 것을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 했다."(9월 12일), "두 개의 축은 새로 지은 도서관과 기존

7) 출판사 '생각의 나무' 대표.

8) 김언호 이사장이 '라이브러리 호텔지지향'에 비치할 장서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원로 지식인·학자들에게 보낸 문건, '종이책을 보존·보호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펼칩니다'.

의 미술관이다.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술관도 일품이다.”(9월 20일), “지금 파주출판도시에 ‘지혜의 숲’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마구 버려지고 있는 책들을 소장해서,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도서관이다. 파주출판도시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과 지식연수원 지지향 호텔에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⁹⁾(9월 25일), “문화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 책방한길로 왔다. ‘지혜의 숲’ 예산증액 도와달라고 했다. 돕겠다 했다.”(10월 9일), “오후에 ‘지혜의 숲’ 도움받기 위해서 최재천 의원 만나러 국회 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만났다. ‘지혜의 숲’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도 동의했다.”(10월 11일), “‘지혜의 숲’이 만들어지면 ‘숲’에서 행사를 하면 더 빛날 것이다. 책의 유포피아에 책의 유포피언들이 모이는 거다. ‘지혜의 숲’ 위해 여러 사람들과 통화했다.”(10월 12일), “동아일보가 ‘지혜의 숲’ 자그마하게 보도했다. 서울신문 이순녀 차장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다. 중앙선데이 이양수 국장과 통화했다. 내일 오전 일찍 인터뷰하기로 했다. 교수신문 최익현 국장과 통화했다.”(10월 30일), “‘지혜의 숲’ 디자인 교통정리했다. 디자인 작업에 네 명이 참여하는 건 번다해 보이고 비용 지출도 과다해 보일 수 있다. 작은 비용이라고 줄여야 한다. 공금이기엔 더 그렇다. 교보문고에서 오늘 책 10만권 추가로 보내왔다. 총 15만권이다. 민음사가 5천권 보내왔다. 책 모으는 것은 오히려 쉬울 것 같다. 문제는 시설 예산이다.”(10월 31일), “오전에 청와대 갔다. 교육문

화 수석실의 신종필 행정관과 지난주에 임명된 비서관 만났다. ‘지혜의 숲’ 지원 부탁했다. 대령이 ‘선물’ 하나쯤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아직 보지 못했다는 중앙선데이 기사를 주었다. 오늘자 문화일보도 한 논설위원이 지혜의 숲에 대해 칼럼을 썼다.”(11월 4일), “한겨레신문 한승동 씨와 인터뷰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 한승동 씨도 ‘지혜의 숲’ 정말 해봄 직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가 책 기증하겠다고 한다. 일조각 김시연 사장이 연락해왔다. 한경구 교수가 ‘지혜의 숲’ 알리고 있다 했다.”(11월 25일), “한겨레신문 허미경 책팁장, 한승동 선임기자 등 같이 점심했다. ‘지혜의 숲’ 이야기했다. ‘권독사’ 제도 만들겠다고 했다. 젊은이들에게 책을 설명하고, 책 읽기를 권유하는 볼런티어들이다. 젊은이들에게 책 읽게 도와주는 ‘지혜의 숲’이 되어야 한다. ...미국대사관저 자리에 호텔을 짓지 말고 도서관을 짓게 하자! 출판인회의 박은주 회장과 책 읽는 재단 안찬수 처장,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 했다. 도정일 학장과도 통화했다. 출판인들과 도서관인들, 독서운동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서관을 이곳에 세우는 운동을 하자! 오늘 한승동 씨도 말했다. 이곳에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고. 김민웅 씨와 통화했다. 모이자고.”(12월 10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영상물 중단하고 새로 제대로 만들자 했다. ‘지혜의 숲’ 5월초 개관이 아니라 4월초 개관으로 앞당기자고 했다. 어린이책 축제와 섞이면 안 된다. ‘지혜의 숲’ 열면서 여러 프로그램들 기획해야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이야기’ 원고, ‘지혜의 숲: 24시간 열린 종이책 도서관을 만들면서’.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팀 조직해야 한다. 블런티어들로 구성될 '권독사'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한다.”(12월 11일), “출판인회의 박은주 회장과 책 읽는 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나오라고 했다. 미국대사관 관저 자리에 호텔을 짓지 말고 도서관 짓자는 의견 발표하자는 내 아이디어다. 출판계와 도서관계, 독서운동하는 인사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문화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도서관' 또는 '서울 책의 전당' 건립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도서관' 의견에 이의를 달 언론도 없을 것이고 정당도 없을 것이다.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날림으로 지은 구청의 오래된 청사처럼 생겼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 ...토요일 도종환 의원과도 이곳에 도서관 짓자고 이야기했다.”(12월 16일), “이재오 의원과 통화했다. '지혜의 숲' 이근현 위원에게 이야기해놓았다고 했다. 예결위에 넘어오면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다.”(12월 23일), “최재천 의원 보좌관이 밤늦게 전화해왔다. '지혜의 숲' 예산 5억 늘리는 안을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최재천 의원이 나에게 알려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혜의 숲'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준비하는 지혜의 숲은 내 모든 정성으로 추진해야 한다.”(12월 29일), “'지혜의 숲' 예산 5억 증액되어 7억이 되었다고 최재천 비서실에서 연락해왔다.”(12월 31일) 등 무려 24번에 걸쳐 지혜의숲 준비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위해 김언호 이사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직접

만나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책에는 1년 간 김언호 이사장이 만났던 1,000명의 사람들과 읽은 사상가들의 명단도 부록으로 담았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발전되고, 결국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서관인'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었다. 김언호 이사장이 도서관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기관은 기존 도서관계가 아닌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도서관 조성 및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안찬수 사무처장)과 도서관친구들(여희숙 전 대표) 관계자들뿐이다.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김언호 이사장이 도서관의 매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서관인 한 사람만 만났어도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이사장의 구상대로 '열린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는 지혜의숲이 '버려지는 책'을 재활용,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책 비주얼 효과공간으로서 단순히 '책의 유토피아'에 그치지 않고 출판계가 운영하는 국내 첫 사립도서관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박영숙¹⁰⁾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박영숙 이사장은 2014년 9월 25일 파주출판문화단지 인근 교하도서관에서 김언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위원장과 '도서관 초대석, 지혜의 숲과 도서관' 대담을 가졌다.

10) 필자와의 대담. 2014. 10월 4일.

저는 처음 지혜의숲을 보면서 뜻밖이었던 게 책을 보면서는 반성이 많이 됐어요. (중략) 참으로 아쉬운 건 도서관인들을 안 만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반성이 되었어요. 저도 도서관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파트너가 아니구나. 도서관계 그 누구라도, 이걸 우리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반성을 했어요.

더구나 김연호 위원장이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과 출판인, 건축가 등을 만나면서도 정작 도서관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더구나 출판계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출판계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사실이다.

너무 뜻밖이었던 건 출판계가 요즘 되게 어려워서 그걸 살리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출판계에서 기증만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중략) 그럼 우리도서관 만들 때 다 기증받아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계획이시냐? 그랬더니 '지혜의숲은 도서관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혜의숲에 대한 도서관 논란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혜의숲 쪽에서 "우리는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이사장의 지적처럼 국가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공성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더구나 40여 년간 도서관과 뿔뿔이 떨어져 있던 동반자적 관계였던 출판계의 원로가 도서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혜의숲이 도서관이든, 아니든 해묵은 명칭 논란보다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전통적 도서관조차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혜의숲은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담론과 변화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가 재접합됨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다시 이끌어냈고, 도서관과 출판이 다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율적 담론을 위한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과주출판도시에 문을 연 지혜의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논란을 하나의 사회적 '담론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한 언론보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소셜 미디어, 도서관계와 출판계 인사들의 담론에 대한 인터뷰를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지혜의숲을 '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아니냐는 보도를 중심으로 어휘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명칭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들을 살펴보면 '가치', '개방', '공간', '공유', '리사이클링', '신개념', '실험', '열린', '자원봉사', '절감', '지식', '활성화'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단어들의 특징은 수식어로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부정적인 담론에서는 '뒤섞여', '전략', '책의 납골당', '지적', '불가능', '계약직',

‘비정규직’, ‘해고’, ‘고질’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등장한다. 또한 조합어 사용에 있어서도 수위가 높은 완곡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이 아니라는 강한 은유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태(態), 명사화, 긍정·부정문, 서법(서술문, 문법상의 의문문, 명령문), 대명사, 접속사 등 문법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론적 실천에서는 언론은 자신이 문제화하려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장르 즉 형식으로 담아 다양한 독자층에게 혹은 동일한 독자의 다양한 측면에 의미작용을 하려고 ‘보도’가 아닌 ‘칼럼’ 등 오피니언, ‘인터뷰’ 등을 통한 감성적 장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 매체로서 기능하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지혜의숲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실천에서는 지혜의숲이 도서관이든, 아니든 해묵은 도서관 명칭 논란보다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전통적 도서관조차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숙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지혜의숲은 오히려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담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재접합되는 결과를 낳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다시 이끌어냈고, 도서관과 출판이 다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율적 담론을 위한 길을 터줬다고 할 것이다. 페어클로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담론의 질서라 하더라도 봉합선 없이 매끈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헤게모니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상호텍스트성이란 앞서 분석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담론들이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소들 간의 접합, 탈접합, 그리고 재접합 등의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가 형성되어 가며, 그것의 담론적 측면이 바로 담론의 질서이다.

이제는 가장 먼저 도서관이 나서야 한다. 21세기의 도서관은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하는 적합한 지식정보자원을 적시에 공급하고, 연결해주는 정보센터로서 현대적 의미의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변화 추세를 민감하게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도서관은 그 역할과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조직의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다.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는 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을 공유하는 목적은 도서관들이 이러한 자원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도서관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는 원활한 지식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이다. 도서관에서의 공유 대상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 장서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시설, 설비, 기술, 인력, 사서직원이 지닌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자원의 분담수서,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목록 작성,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보존,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도서관 협력망, 국내·외 지식정보자원 협력망 등 이미

시작된 도서관계 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혜의숲을 '도서관답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혜의숲에 대한 7억 국고 투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알린 내용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

수십만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지혜의 숲에서 도서 검색의 기본이 되는 DB작업 없이 개관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전시행정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이상 '지혜의 숲'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요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의 숲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야 겠도 습만 화려해 보이는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기금을 투입한 정보에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담론이다. 더구나 개관 직후 맞은 여름 휴가철, 휴가지 대신 물밑 듯이 찾아왔던 하루 수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한 지혜의숲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 없이 자원봉사 형태의 권독사만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수백만원

의 인건비와 최소 1,000만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만 한다. 물론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일상성과 반복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낮 시간대를 제외하면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출판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영국 웨일즈 지방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¹¹⁾나 벨기에의 산골 책방마을 레뒤,¹²⁾ 네덜란드의 책방마을 브레드포트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인 누구라도 찾고 싶은 특화된 북시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짜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책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가 빠른 오늘날 사회는 그 변화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병원이나 학교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책을 도입하는 등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고유의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도서관은 '수집·정리·보존하여 대출·열람·참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외형도 변화

11) 영국 웨일즈 지방의 와이(Wye) 강변에 위치한 헤이온와이(Hay-on-Wye)는 쇠락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나, 1961년 리처드 부스에 의해 책마을로 탈바꿈한다. 오래된 성, 버려진 집, 창고들을 헌책방으로 바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런던에서 2시간, 옥스퍼드에서는 1시간 거리다.

12) 1981년 레뒤 마을은 웅셀로라는 사람이 헤이온와이 책마을에서 힌트를 얻어 조성했다. 웅셀로가 데려온 브뤼셀의 서점인들은 레뒤의 헛간이나 처마 밑에 책방을 차린다. 레뒤 마을의 학교 교실, 사제관, 외양간 등을 서점으로 개조하는 한편, 방송매체의 힘을 빌려 책마을 붐을 조성한다. 1984년 부활절에는 수만 명의 책 애호가를 불러들여 책축제를 펼치기에 이른다. 이렇게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생겨난 카페와 식당, 그리고 가게만 해도 100여 개에 이른다. 1994년을 기준으로 주민 400여명에 불과한 레뒤 마을의 책방은 24곳이고, 60만권의 책이 있다. 한 해 방문객은 20만명을 헤아린다. 레뒤 책마을은 유아, 해양, 역사, 예술, 항공 등의 분야별 전문 책방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출처: <출판저널> 제150호).

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지만 도서관 본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도서관'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도서관'의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진짜 도서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감한 도서관계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의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서관 명칭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반영한 도서관의 대처방안과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제한점은 '지혜의숲'이 여전히 여론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계속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데 있다.

기존의 '도서관' 역시 변화의 기로에 있다는 점 또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한계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어쩌면 멀지않은 미래에 '도서관'은 그 본질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현상과 문화를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인 담론 연구의 특성상 급변하는 시대가 가장 큰 연구의 한계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극복할 수 있는 제한점은 보완하고, 계속해서 도서관 명칭, 나아가 문헌정보학 분야 전반에 대한 담론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153-182.
- 곽동철. 2008. 사서자격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339-361.
- 곽동철. 2013. 대학도서관장에게 바란다. 『제15차 도서관장 회의』, 2013년 4월 18-19일. 제주: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김소희. 2007.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서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 김언호. 2014. 『책들의 숲이여 음향이여』. 경기 파주: (주)도서출판 한길사.
- 김영심. 2000. 『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 김재환. 2013.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책여론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구제역 관련 트위터 리트윗(RT)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김정근, 김영기. 2000. 한국 언론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63-86.

- 남태우. 2002.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성립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59-296.
-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해설. 2011. 『담론의 질서』. 서울: 도서출판 새길.
- 박명진. 2012.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서덕희.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신동일. 2012. 토플대란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 - 비판적 담론분석을 기반으로. 『Foreign Language Education』, 19(1): 187-194.
- 윤희운. 1999. 한국 공공도서관의 진로-명칭변경 음모를 중심으로. 『1999년도 동계 학술발표회』. 1999년 1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4-28.
- 윤희운. 2009.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 이종문. 2003.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75-98.
- 이진우, 박일우, 김종환. 1996. 담론이란 무엇인가? - 담론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 『대한철학회 논문집, 철학연구』, 56: 257-290.
- 임태섭. 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 창간호: 67-109.
- 장덕현. 2000.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 269-288.
- 장덕현, 강은영. 2011.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70-288.
- 장우권. 2002. 공공도서관 지식경영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209-240.
- 정동열, 조찬식. 2010. 『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미정, 백선기. 2011. 한국신문의 영화에 관한 보도담론의 특징과 의미: 산업담론과 문화담론의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3): 28-53.
- 정현태, 조미아, 이진우, 박영애. 2010.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최윤선. 2014. 『비판적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경향신문』. 2014.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림 가짜인가. 7월 1일.
- 『도서관계』.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3월.
- 『서울경제』. 2014. 책 읽는 대한민국 실천하려면. 7월 2일.
- 『아시아경제』. 2014. 박원경 사서협회장, 도서관 행정 난맥, 사서의 힘 모아 혁신하겠다. 4월 18일.
- 『한겨레』. 2014. 번지수 틀린 ‘지혜의 숲’ 논란. 7월 16일.
- 『한겨레』. 2014. 권독사와 이용자들 어울리는 정보·담소공간 되길. 7월 30일.
- 『한국일보』. 2014. 숲과 늪. 7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4.10.3]. <<http://www.law.go.kr>>.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online]. [cited 2014.10.10]. <http://www.clip.go.kr/pds/pds_view.jsp>.

문화센터 [online]. [cited 2014.10.10].

〈<http://stat.mcst.go.kr/mcst/resource/ebook/ebookIndex.html>〉.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online]. [cited 2014.10.20]. 〈<http://www.opengirok.or.kr/3928>〉.

파주출판도시 [online]. [cited 2014.10.10]. 〈<http://www.pajubookcity.org>〉.

출판문화산업진흥원 [online]. [cited 2014.10.11]. 〈<http://www.kpipa.or.kr>〉.

『SBS』. 2014. '지혜의 숲'을 건다...책 권하는 진짜 도서관. 6월 20일. [online]. [cited 2015.3.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49194〉.

A. McHoul. Discourse. in *Encyclopedis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 eds, R. E. Asher. (Oxford: Pergamon Press, 1994).

Fairclough, 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1995). Longma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irman of Association of Librarians Park, Won-kyung, Librarians Pull Their Wisdom to Innovate the Chaos of Library Administration. 2014. *The Asia Economy Daily*, April 18.

Chang, Durk-hyun. 2000. "Discourse 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2): 269-288.

Chang, Durk-hyun and Eun-young Kang. 2011.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Public Library Acquisi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70-288.

Chang, Woo-kwon. 2002. "A Study on the Knowledge Management Model i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209-240.

Choi, Yoon-sun. 2014.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 Seoul: Korea Munhwa Publishing.

Controversy over Wrong 'Forest of Wisdom'. 2014. *The Hankyoreh*, July, 16.

Culture Saemter e-book [online]. [cited 2014.10.3].

〈<http://stat.mcst.go.kr/mcst/resource/ebook/ebookIndex.html>〉.

Forest and Swamp. 2014. *Hankook Ilbo*, July, 12.

Foucault, Translator: Lee, Jung-woo. 2011. *The Order of Discourse*. Seoul: Saegil Publishing.

Hoping a Place Where Book Recommenders and Users can Enjoy and Share Information. 2014. *The Hankyoreh*, July, 30.

Im, Tae-sub. 1993. "Discourse Analysis on Fairness of Television News." *Media and Society*, 1st issue: 67-109.

- Is the Library We Work at Fake?. 2014. *Kyunghyang Shinmun*, July, 1.
- Jeong, Dong-youl and Chan-sik Cho. 2010. *Introdu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Joung, Hyun-tae, Mi-ah Cho, Jin-woo Lee, and Young-ae Park. 2010. *A Study on Activation Plan for Private Small Library*.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Jung, Mi-jeong and Sun-ki Baek. 2011. "Media Discourses on Korean Films in Korean Newspapers, and their Specific Perspectives and Meaning: A Discours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Industry Discourse and Culture Discourse." *Journal of the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3): 28-53.
- Kang, Eun-yeong. 2013. "A Study on the Book Purchase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153-182.
- Kim, Eon-ho. 2014. *Forest of Book*. Gyeonggi Paju: Publishing Co. Hangilsa.
- Kim, Jae-hwan. 2013. *A Study on Policy Opinion Information Process by the Social Media: Focused on the Twitter Retweet Related on the "Foot and Mouse Diseas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Communication of Seoul.
- Kim, Jun. 2006. "Understanding of Small Library." *The Library Community*, Vol.140.
- Kim, Jung-geun and Young-ki Kim. 2000. "A Bibliographic Study on Postcolonial Discourse of Korea Journalis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1): 63-86.
- Kim, So-hee. 2007. *A Small Library in Our Town Makes People, A Small Library in Our Town*. Seoul: Korean Children's Library Association.
- Kim, Young-cheon.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Academy Press.
- Kim, Young-shim. 2000.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Names of Librarie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 of Hanyang.
- Kim, You-seung. 2014.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384-388.
- Korea Law. 2014. [online]. [cited 2014.10.3]. <<http://www.law.go.kr>>.
- Kwack, Dong-chul. 2008. "Certification in Korea: History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39-361.
- Kwack, Dong-chul. 2013. Expectations to Directors of University Libraries. *15th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April 18-19, 2013. Jeju: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 Lee, Jin-woo, Il-woo Park, and Jong-hwan Kim. 1996. "What is Discourse? - Analysis as a New Cross-Discipline." *Korea Philosophy Committe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Study on Philosophy'*, 56: 257-290.
- Lee, Jong-moon. 2003. "Analysis on Identity and Operation of To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75-98.
- Nam, Tae-woo. 2002.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formation*, 36(1): 259-296.
- Paju Bookcity [online]. [cited 2014.10.10]. <<http://www.pajubookcity.org>>.
- Park, Myung-jin. 2012. *Thick Language and Thin Language*. Seoul: Moonji Publishing.
- President's Committee on and Policy [online]. [cited 2014.10.10]. <http://www.clip.go.kr/pds/pds_view.jsp>.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online]. [cited 2014.10.11]. <<http://www.kpipa.or.kr>>.
- Seo, Deok-hui. 2003.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Classroom Collapse' reports: Focusing on the Chosun Ilbo's." *Anthropology of Education*, 6(2): 55-89.
- Shin, Dong-il. 2012. "An Analysis on Newspaper Article on TOFLE Craze - Focusing 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reign Language Education*, 19(1): 187-194.
-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online]. [cited 2014.10.20]. <<http://www.opengirok.or.kr/3928>>.
- To Achieve Korea Where the Public Reads. 2014. *Seoul Economy*, July, 2.
- Understanding of Small Library. 2006. *The Library Community*, March.
- Walking on the 'Wisdom of Forest', A Genuine Library that Recommends a Book*. Seoul Broadcasting Service. 20 June 2014. [online]. [cited 2015.3.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49194>.
- Yoon, Hee-yoon. 1999. "Future Direc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 Focusing on Changing the Titl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28.
- Yoon, Hee-yoon. 2009. "Agenda and Paradox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22.